

특별기고



김석환
광주스포츠과학연구소장

코로나19의 상처가 깊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크기와 형태만 다를 뿐이다. 한국 스포츠는 시대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스포츠 강국의 지위마저 흔들린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메달 순위 16위를 기록했다. 금메달 수만 보면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이래 37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다. 진실은 차가운 법이다. 지금의 선택과 실행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환골탈대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맞이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할까?

알고리즘(algorithm)은 대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랍의 수학자 '알 카리즈미'의 이름에서 따왔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의미한다. 미국의 이론물리학자이자,

양자전자역학의 재규격화 이론으로 1965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리처드 파인만은 어떤 문제라도 풀지 못할 것이 없는 기발한 문제 해결법을 제안했다. 위대한 이론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설명한다. 세 단계로 이루어진 파인만 알고리즘이다. 첫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종이에 쓴다. 둘째, 골똘히 생각한다. 셋째, 답을 쓴다. 이 방법은 의외로 큰 힘을 발휘한다. 가장 큰 장점은 구체적 전략을 세울 수 있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해 실마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더불어 구체적 질문의 형태로 쓰다 보면, 앞의 부족을 파악할 수 있다. 스포츠 정책 입안자는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바란다.

'파인만 알고리즘'과 '회복력'

회복력(resilience)이라는 용어는 '다시 뛰어오른다'라는 뜻의 라틴어 리실리오(resilio)에서 비롯됐다. 시스템 내·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극복해 원래 기능을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위험요인은 예측 가능성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원인을 단일 요소로 규정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예측 불가능성은 문제의 복잡성에 기인한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념이 확장돼 새

한국 스포츠 담론

로운 질서와 규범을 모색하는 노력 또는 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한국 스포츠의 문제점은 현장과의 괴리가 심하다는 점이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들도 문제점이 많다. 변화의 속도는 빠르지만 관련 정책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서 회복력은 현장의 문제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통해 이전과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창발성(emergence)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문제 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위험요인을 구조적으로 감소시키고, 기존 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와 규범, 가치를 가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는 이야기로 구성된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방향은 그만하면 됐다. 땀집식 스포츠 정책은 철회를 맞았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책만을 발표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미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은 입안부터 집행까지 일관성이 결여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단기간 대응과 처방에 치우친 정책들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스포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체계적이고 상식이 통하는 실행 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 차기 정

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거시적 관점에서 근본부터 바꿔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스포츠의 구조개혁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는 국가체육위원회나 체육청 등의 설립을 통한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록권 세력의 방해를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수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어 잘 들리지 않을 뿐이다. 문이 닫혔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문을 밀어보아야 한다.

우리만의 '이야기' 필요

고대 그리스에는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 있었다. 크로노스(chronos)와 카이로스(kairos)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이다. 시계 속의 분, 달력 속의 달이다. 카이로스는 딱 맞는 적절한 때를 의미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무리익은 기회다. 스포츠 정책에 관심을 갖고 시대적 비전과 공약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다. 정책은 과감해야 하지만, 동시에 치밀하고 정교해야 한다. 과거를 미래를 위한 물음이다. 가만히 있다가는 '오징어 게임'의 대사처럼 "이러다다-하-죽어"라는 말이 현실이 된다.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기고



김동선
광주시 남구 혁신정책과장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해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중점을 두고 5년씩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에 해당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가발전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정책 관점을 전환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는 정부의 핵심 정책과 더불어 합계출산율 0.84명(2020년 기준)의 인구절벽 위기 속에서 저출산 극복 및 각 세대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운영해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구 인구 현황으로는 2021년 기준 남구 인구는 21만 5,575명으로 광주광역시 전체 인구의 14.9%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고, 출생아수는 1,028명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 또한 남구의 최근 5년간 고령화율은 14.7% → 17.6%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증가로 인구감소 추세 속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령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심화, 인구 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믿고 낳을 수 있는 지역 사회 환경 조성 및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의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반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남구 주요 인구정책으로는 남구 현황과 여건을 고려한 인구교육 계획을 수립·실시 ▲인구정책 아카데미 운영, 인구정책에 대한 구민의 정보 접근성 및 편리성 제고를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정책 홍보(리플릿 제작 등) 실시 등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인

모든 구민이 행복한 남구 인구정책

구위기에 대한 대응기반을 강화'한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위한 역량을 집중한다. 육아·돌봄 등 가족정책의 핵심거점 공간 ▲가족사랑 나눔센터 건립, 출산율 제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든 출생아 대상 200만원을 지급하는 ▲출생아동 첫만남이유권 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체계 구축 및 초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운영, 공공부담 보육가능 강화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아동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남구 지역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장의 인재 육성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중·장년층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활동 일자리를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포용적인 노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 예방 및 홍보를 위한 ▲VR(가상현실) 인지훈련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발굴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남구형 맞춤형·만족 노인 일자리 창출, 만 100세가 된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축하 분위기 조성 및 경로효친사상 제고를 위해 ▲장수 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 등 고령화 시대에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의 순인구수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런 추세로 진행되면 약 50년 뒤인 2070년에는 3,70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남구의 인구가 또한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소멸·초고령사회 임박 본격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구의 인구 정책은 주거정책에서 결혼, 출산의 연결고리로 선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젊은 인구 유입에서 출산율까지 증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거주자들의 만족도 또한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남구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살고 싶은 남구'의 인구정책 비전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200여명은 소방호스 대신에 삽과 망치를 들고 필사적인 구조작업으로 4명은 구조했으나 나머지 6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야 하는 직업은 군인, 경찰, 소방관이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 번영과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소명을 잊어버린 직업도 있지만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은 소방이다. 도심을 달리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는 우리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인지 모른다.

/송재민 송하119안전센터장

특지광장

지난 5일 경기도 팽택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또 목숨을 잃었다. 순직한 소방관의 합동 영결식에서 함께 근무했던 119구조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별사를 읽었다.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놓칠까 메케한 연기 속으로 묵묵히 들어가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뜨겁지 않은 세상에서 편히 쉬길 바란다"고 울먹였다. 아침과 저녁을 번갈아가며 출퇴근하는

소방관, 목숨 걸고 책임지는 직업

남편과 자녀들을 보면서 혹시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소방관 가족이 거의 유일할 것이다.

2001년 3월 4일 새벽 3시 47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다세대주택에서 집주인 아들의 방화로 소방관 6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3명이 큰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가 있었다.

그때 집주인이 "내 아들이 안에 있다"는 주장에 이미 화마로 뒤덮인 2층 집으

로 소방관 3명이 진입했으나 아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게 1차 수색이 종료됐다.

그런데 집주인이 또다시 "사람이 안에 있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고 했고 당시 소방관 10명은 지금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비우)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조자가 있다는 말 한마디에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대원들이 건물에 들어간 후 '뿡' 하는 소리와 함께 2층 주택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구조대원

사설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분권 시대 기대

자치분권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 1988년 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지 32년 만에 광주와 전남에서도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특히 재정분권 등의 변화가 기대된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돼 광주와 전남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재정분권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으로 지방세가 크게 늘어나 세입은 올해 25.3%까지 늘어난다. 광주는 3,127억 원, 전남은 8,363억 원의 재정 확충의 효과를 보게 된다.

지방의회의 권력이 커진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 또 주민이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 제도를 운영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어

졌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자치제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시는 인접 5개 시·군과 힘을 합쳐 빛고을 메가시티를 만들 구상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자생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례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간의 반복 지방자치의 틀을 깨고 자치분권을 완성,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물론 시행착오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극복해 나가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것이 이 시대의 대명제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참사 무관용 처벌' 제도 보완 시급하다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이어 화정동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붕괴 사고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책임 소재와 관련, 두 사고를 현장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사업 허가권자로 관리 감독하는 해당 지자체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주지하는 것처럼 지난해 6월 학동 참사 당시 원정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9명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하도급업체 관리자 또는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가 일어난 시기가 안전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현대산업개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설령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원정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 공사를 진행한 개별기업의 사용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원정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범위는 모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와 같이 공기 단축, 부실 시공 의혹 관련 책임과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해당 지자체의 민원 처리 대응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서구청은 사고 전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분진 등 공사 피해와 관련한 잇따른 민원과 항의를 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는 사고와 책임 소재를 놓고 광방만 벌이다가 유아무야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현대산업개발의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한계에 부딪혔다.

최 단장을 떠나보내며

기지사첩

학이 춤추는 마을인 일본 교토 현 마이즈루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다. 노는 것보다 발레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좋았으나 재일동포로 일본에서도, 한국에 와서도 늘 외톨이였다는 소녀. 그 소녀는 다름 아닌 37세의 나이에 국립발레단 최연소 단장으로 취임해 국내 발레 역사를 다시 써 내려간 최태지다.

그런 그녀가 지난 2017년 광주시립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된 해, 나는 영국 로열발레단 최연소 수석 무용수 세르게이 폴루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댄서'를 처음 보게 됐다.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발레리노의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몸짓은 나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다. 어린 시절 동생의 발레 후 활동이었던 발레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어깨너머로 보곤 했던 발레의 매력을 깨닫는 것도 그때였다.

그렇게 나의 첫 발레 공연은, 그녀가 새로운 수장이 된 해인 2017년 새롭게 재탄생한 '호두까기 인형'이 됐다. 발레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무지한 관객이었지만, 무대를 활보하는 무용수들의 몸짓에 압도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연을 관람했었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20년, 시립발레단의 '오월바람' 취재를 위해 그녀



오지현
문체부 기자

를 만나게 됐다.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반갑게 맞이하던 최 감독은 "무용수는 하루만(연습을) 쉬면 자신이 알고 이들을 쉬면 안무가가, 사물을 쉬면 관객이 아니다"며 무용수로서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한 시간 반 남짓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발레를 향한 그녀의 열정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해 본 '오월바람'은 그 해 내가 본 가장 인상적인 공연들 중 하나가 됐다.

작년 말, 4년에 걸친 최 감독의 임기가 끝났다. 발레 불모지인 광주에 내려와 전국의 발레 애호가들의 발걸음을 광주문화예술회관으로 이끌어 낸 그녀의 시간과 공로에 박수를 보내며, 그녀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광주시립발레단만의 대표 레퍼토리 공연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fire, and social welfare.

Table with 3 columns: Contact info for Jeonnam Daily (1989), Jeonnam Daily (2005), and Jeonnam Daily (2005). Lists phone numbers for editorial, circulation, and advertising departments.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